

공연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2013~2017)

워터밀센터 국제여름프로그램 레지던스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워터밀센터 국제여름프로그램
국가	미국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7. 16 ~ 8. 21(37일)
파견예술가명	신은경

- 프로그램 정규기간 : 2017. 7. 17 - 8.20 (총35일간)
- 센터 위치 : watermillcenter, 39 Watermill Towd Road, Watermill, New York, U.S.A.
- 홈페이지 : watermillcenter.org
- 사진아카이브 : watermillsummer.com
- 비밀번호 : yesyoucan
- 숙소위치 : Staff Hause, 57 Old Trail Rd
Dorms, 39 Watermill Towd Road
White House, 428 Edge of Woods Road, Southampton
Happy House, 5 Northview Hills (본인이 머물렀던 숙소)
Terrace Hause, 39 West Trail
Farm Hause, 636 Deerfield Rd
Bamboo Hause, 122 Straight Path, Southampton
Small Hause, 21 Milton Road, Southampton
Train Track Hause, 41 Fairbanks Court, Water Mill
- 2017 국제여름프로그램 참가자 : 2회 이상 참여자 16명 + 새 참여자 24명 = 총 40명
Giovanni Firpo (이탈리아, 연출), Denise Mei Yan Hofmann (홍콩, 실험음악), Laurent Le Gall (프랑스, 댄서), Edoardo Marcolini (이탈리아, 조명), Genevieve Traviss (호주, 배우), Jokūbas Nosovas (리투아니아, 댄서), Dorian Šilec Petek (슬로베니아, 연출), Diogenis Skaltsas (그리스, 배우), Alice Stern (프랑스, 배우), Sichong Xie (중국, 시각예술), Marie de Testa (멕시코, 무대미술), Jeremy Michael Segal (캐나다, 연출), Dario Felli (이탈리아, 조명), Erik Dstrand (뉴욕, 목수), Ivan Cheng (네덜란드 중국, 시각예술), William Zimolo (브라질, 배우), Chloé Bellemère (프랑스, 무대미술, 사진), Paola (이스라엘, 댄서), Robson Catalunha (브라질, 배우), Damian Adrian (루마니아, 무대미술), Deborah Emmanuel (싱가폴, 시인, 가수), Miles

Greenberg (프랑스, 댄서), Nile Harris (뉴욕, 댄서, 배우), Jonas Tesseract (독일, 배우), Eunkyoung Shin (한국, 프로듀서), Vesna Mačković (크로아티아, 퍼포먼스 예술가), Sara Maurin (세네갈, 댄서), Muller Olivier (프랑스, 댄서), Stefanija Nosovaite (리투아니아), Cinthya Oyervides (멕시코, 댄서, 안무가), Lara Bordin (브라질, 배우), Anne Ringwall (미국, 시인, 가수), Philipp Schaus (독일, 연출), Zhanel Sergazina (카자흐스탄, 배우), Janis Snikers (라트비아, 조명), Barbara TRAN (프랑스, 무대미술), Vlad Troncea (루마니아, 배우, 댄서), Jayson Pugh(뉴욕, 배우), Thorsten Hoppe (독일, 음향), Katherine Wilkinson (미국, 연출)
기타 센터의 스테프 3-40여명

레지던스 기관 소개

뉴욕의 부촌인 롱아일랜드의 깊숙이 위치한 워터밀센터는 월슨이 90년대 초반 버려져있던 western union의 연구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월슨의 중심 거처가 됩니다. 자폐아 였던 월슨의 언어 치료 선생님의 이름을 딴 버드 호프만 워터밀 재단이 워터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슨이 대표자입니다. 국제 여름 프로그램은 1992년 트리샤 브라운 무용단과 공동으로 개최된 역사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워터밀 센터는 월슨의 보물창고로서 평생 월슨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유물들이 개인 박물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 내에 예술 도서관과 월슨의 개인 거주 공간, 예술가의 숙소와 작업 공간, 사무실, 대형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 여름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가을과 봄에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들의 예술 교육을 위한 워크샵, 강연들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국제 교육 협력 프로그램들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예술 협력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자 로버트 월슨(1941-)은 ‘이미지 연극’의 창시자로서 연극계의 살아있는 거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 만7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연극을 넘어서 오페라 연출 및, 화가, 조각가, 비디오 아티스트, 건축가 등 다양한 매체의 실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같은 행위예술가, 레이디 가가나 조니덱과 같은 할리우드 스타와 함께 작업을 하며 늘 새로운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월슨의 주니어라 부르는 월슨의 영향을 받은 젊은 연출가들이 워터밀센터의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프로그램의 워크샵에서 월슨과 함께 공동연출을 맡은 Tilman Hecker, Charles Chemin도 여름프로그램 출신으로 주목받는 작업을 이어오는 신진 연출가들입니다. 이 밖에도 Enric Ruiz Geli는 워터밀 건물을 리모델했고 현재까지 월슨과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여름 프로그램 중간에 옥션과 갈라 공연을 보이는 행사를 통하여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들을 후원받습니다. 갈라 공연의 경우 카티일 티켓의 가격은 650\$이고 최상의 좌석은 25,000\$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판매되는 월슨의 시각예술 작품은 1억원 가량(100,000\$)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디스커버 워터밀 데이에는 같은 퍼포먼스 공연을 가지고 센터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예술교육에 힘쓰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 소개〉

같은 층이나 공연 연습을 위한 거울이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중앙 홀이 가장 넓은 공연 공간이며 큐브를 옮겨와서 객석을 삼습니다. 제작실은 야외에 간이식으로 3공간이 있습니다. 전기톱이나 드릴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일반적인 작업을 위한 공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조명기는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닫힌 공간이 없습니다. 건물에는 화장실과 복도를 제외하고 모든 방들은 문들이 없습니다. 이로써 자연적인 건물, 유기적인 건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워터밀 공간 소개〉

철학적인 고민까지 담겨있는 워터밀센터 공간은 인상이 깊었습니다. 건물의 배꼽 부분에 위치한 도서관은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직관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해오는 월슨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작 활동에 앞서 철저한 이미지 연구에 몰두하는 월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층에는 직원들의 사무실과 회의실, 사위실이 달린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까지 넉넉하게 갖추어졌고 큼지막한 부엌과 식재료를 아름답게 장식한 로비가 인상 깊었습니다. 건물의 중앙은 공간을 비워버림으로써 건물자체가 자연의 일부로 보이도록 자연과 조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중앙정원은 메디테이션 정원으로 불리며 사색과 침묵, 영적인 명상을 중요시하는 월슨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좌측은 2,3층을 합쳐 중앙홀로써 모든 미팅과 강의, 주요 세미나들을 진행합니다. 이 중앙홀은 워터밀센터를 대표합니다. 우측은 2층에는 천장이 모두 뚫린 4개방이 예술가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측 3층은 월슨의 개인거주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건물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상주함도 아니지만 월슨의 결벽증적인면이 스테프들에게 잘 각인되어 어느 공간이든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월슨의 손님들의 방문이 잦기 때문에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에 늘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소 소개〉

숙소가 센터로부터 자동차로 멀게는 20분 짧게는 5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보통 하우스 전체를 임대합니다.

후원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며 임대해 주기도 합니다.

수영장은 물론 텔레비전과 욕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면허증으로 뉴욕 내 운전이 허용됩니다.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해 가세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1주차 : 워터밀센터 청소, 가든 정리 및 워터밀의 규칙과 팀에 적응하기

- 센터와 숙소 관리

다섯 개의 그룹으로 참가자들과 스테프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각 그룹은 매일 매일 센터 청소부터 자동차 청소, 화장실 청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후의 설거지들을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청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픈 사람과 로버트 윌슨뿐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나이가 많은 예술가나 스테프들도 빠짐없이 자기 몫을 함께 해준다는 점입니다.

- 정원 손님맞이 준비하기

8.5 에이커의 땅 (대략 35,000평방미터: all in a 20,000-square-foot building on 8.5 acres)의 정원을 40명의 숙달되지 않은 참가자로 인해 2주간 정리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함께 겪음으로써 참가자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극 작업이 협력 작업으로 서로간의 노동으로 친밀해 진다는 점을 볼 때 연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상대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판단하기에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정말 심하게 햇빛이 내려찍는 날에도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선크림과 물병, 풀숲에 진드기나 벌레가 많기 때문에 해충 방지 스프레이도 제공 받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긴 바지를 선호합니다.

2주차 : FLY INTO THE SKY 준비를 위한 역할 나누기, 퍼포먼스 연습, 그러나 계속되는 워터밀센터 청소와 가든 정리

7, 8월 두 달간 워터밀센터에서는 두 가지 행사와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하나는 7월 말에 진행되는 “플라이인투더스타이”는 워터밀센터 기금을 모으는 주요한 행사입니다. 전문 경매사가 진행을 맡은 상업 미술 옥션을 중심으로 상업적인 미술 거래가 이뤄지고 이외에도 높은 가격으로 가든 전체에 다양한 공연예술을 실연하면서 칵테일 바를 열어서 미국 최상류층의 호화로운 예술파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번째 8월 중순에 열리는 “디스커버워터밀데이”는 워터밀센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로 무료로 일반인들에게 워터밀센터를 오픈하는 날이다. 상대적으로 스테프들의 긴장이 덜 한 분위기입니다.

옥션 날이 다가올수록 스테프들과 윌슨은 점차 날카로워집니다. 이 기간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옥션만 끝나면 워크샵도 있고 편안한 날들이 찾아온다고 견뎌내라고 합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퍼포먼스 역할들이 나눠집니다. 주로 배우인 친구들은 행위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굵직한 작업들은 이미 사전에 예술가와의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 이외에 200만원 내에서 여름 워크샵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워터밀에 도착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발일, 정원 일에 몸과 마음이 다 소비되어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워터밀로 출발하기 전에 행사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창작할 수 있는 여지들을 충분히 만들어 두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원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디 꼭꼭 숨어서

프로젝트 고민을 하든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미친 듯이 정원 일을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관객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월슨은 관객참여를 배제합니다. 참여보다는 이미지로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을 기획하세요.

2017년 7월 29일 FLY INTO THE SKY !!!!!!!

3주차 : 참가자들 간의 작업 소개와 워크샵 진행 그리고 행사 뒷정리

오페라 무대 워크숍	8. 1-14	야외 무대	LE TROUVÈRE by Giuseppe Verdi 제작: Change Performing Arts, Milan, Italy, 오픈장소: Verdi Festival, Teatro Farnese, Parma, Italy, 연출: Robert Wilson, Nicola Panzer, 무대 디자인: Stephanie Engeln, 의상디자인: Jacques Reynaud, 드라마투르기: José Enrique Macián	참여자 20명
오페라 무대 워크숍	8. 4-17	야외 무대	OTELLO by Giuseppe Verdi 제작: Festspiele Baden-Baden, Germany 오픈장소: Festspielhaus Baden-Baden, Germany 연출: Rober Wilson, Nicola Panzer, 무대: Serge von Arx (TBC), 조명: John Torres (TBC), 의상: Jacques Reynaud, 드라마투르기: Konrad Kuhn (TBC)	참여자 18명
오페라 무대 워크숍	8. 3-14	야외 무대	TWO OARS by Paola Prestini and Robert Wilson, 원작: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제작: EDM Productions, Rome 오픈장소: National Theater, Zagreb, Croatia 작곡: Paola Prestini, 연출: Robert Wilson, Tilman Hecker, 무대 디자인: Stephanie Engeln, 조명디자인: Scott Bolman, 의상디자인: Carlos Soto	참여자 15명
무대 워크숍	8. 3-7	야외	TRISTAN & ISOLDE 제작,오픈: 프랑스 파리, 연출: Charles Chemin	참여자 7명
실습 워크숍	8. 1-5	야외	Virtual Reality (VR 실습) 강사: Patrick Kappeler, Lovis Ostenrik	참여자 18명
테이블 워크숍	8. 1-5	야외 무대	BEYOND THE WALL: Splendors of China’s Last Dynasty EXHIBITION, 제작: Minneapolis Institute of Art, Minneapolis, MN, 오픈: Minneapolis Institute of Art, Minneapolis, MN, 무대:Stephanie Engeln, 조명: AJ Weissbard, 드라마투르기/작가: Darryl Pinckney (TBC)	참여자 15명
워크숍	8. 5-14	야외 무대	Ernst Museum, Tower of Babel 연출: Robert Wilson, Tilman Hecker	참여자 13명
강의	8. 1	메인 홀	Silence in the Age if Noise (강사: Erling Kagge & Petter Skavlan)	관객 150여명
강의	8. 3	메인 홀	It is all about Particles (강사: Enric Ruiz Geli)	관객 150여명

노동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니다. 행사 이후 뒷정리를 하는 데에 2,3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계획보다 2,3일정도 워크샵 시작이 늦어지면서 참가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샵 일정은 당일에도 제대로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 7시 한 시간에 걸쳐 참

가자들 작업에 대한 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면 참가자들이 워크샵보다 프리젠테이션에 더욱 열중하면서 참가자들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월슨이 진행하는 워크샵은 월슨의 작업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데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지루한 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배우인 친구들은 월슨과의 오디션을 거쳐 캐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악에 맞춰 몸 동작을 외우는 월슨의 작업 방식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월슨의 연출 방식이 배우를 인형처럼 다룬다고 하여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반면 월슨의 동작 지시에도 배우대로 신체의 근육의 움직임이 다른 모습을 보여 참가자들이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인형처럼 움직이기는 하나 배우간의 움직임과 느낌이 모두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스텝 친구들은 가도구들을 만들어 오거나 거친 재료들을 활용하며 의상을 구상해 봅니다.

• 오디션을 위한 팁

남녀 배우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오디션에 임합니다. 이 오디션은 촬영되어져서 월슨의 공연을 위한 오디션 영상 아카이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디션은 남, 여 그룹으로 나뉘져서, 4가지 과정을 가집니다.

- 서있기, 정지자세
- 1분간 1미터 걷기
- 월슨의 시범 동작을 무리가 함께 따라 하기
- 월슨의 시범 동작을 보고 한 명씩 무대에 나와서 따라 하기

월슨은 눈의 움직임에 주목을 합니다. 유난히 눈을 깜빡거리는 배우는 제외됩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올 때에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좌우로 기울여지지 않고 앞으로 움직임이 없는 듯이 걸어나오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월슨의 동작을 똑 같이 외우는 배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월슨의 안무를 이야기로 익히고 자신있게 자신의 동작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작에 집중하기보다 내면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디션의 결과는 다음날 발표되었습니다.

4주차 : 추가적인 워크샵 진행 그리고 디스커버 워터밀데이 행사준비

연극 무대 워크숍	8. 10-19	야외 무대	OEDIPUS REX by Sophocles 제작: Change Performing Arts, Milan, Italy, 오픈: Siracusa, Italy, 연출: Robert Wilson, Ann-Christin Rommen, 무대: Annick Lavallée-Benny, 조명: John Torres, 의상: Jacques Reynaud, 음악: Kinan Azmeh, 드라마투르기: Konrad Kuhn	참여자 15명
연극 테이블 워크숍	8. 9-18	야외 무대	PHAEDRA by Jean Racine 제작: Comédie-Francaise, Paris, France 오픈장소: Comédie-Francaise, Paris, France 연출: Robert Wilson, Charles Chemin, 무대: Stephanie Engeln, 조명: Xavier Baron, 의상: Jacques Reynaud	참여자 8명
강의	8. 8	메인 홀	Evolution of the Human Brain(강사: Justine Kupferman)	관객 150여명

추가적인 워크샵이 생기면서 추가 인원들이 워터밀센터에 합류합니다. 더욱이 4주차에는 디스커버 워터밀데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플라이인투더스카이에서 보여진 공연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들을 더하여 행사를 준비합니다.

2017년 8월 13일 DISCOVER WATERMILL DAY !!!!!!!

플라이인투더스카이 행사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이 방문했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로서 여름휴가를 맞아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도 눈에 띄니다. 어린이 손님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눈에 띄니다. 워터밀센터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 아티스트 프로젝트도 있으며 가족이 함께 예술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공립학교와 연계하여 활발한 예술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워터밀 행사를 통해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도 홍보하게 됩니다.

5주차 : 워크샵 마무리와 무대 및 설치물 해체 작업

강의	8.15	메인 홀	The Considered (강사: Carrie Mae Weems)	관객 150여명
강의	8.17	메인 홀	Utopia in Action (강사: Alexandra Munroe)	관객 150여명

3주간의 워크샵 기간에 9개의 워크샵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빡빡한 일정으로 인하여 어느 것 하나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스케줄 이었습니다. 스케줄은 월슨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서 쉽게 취소되거나 일정이 옮겨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작업에서부터 연극, 라디오극, 오페라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 번에 돌리라며 작업을 진행하는 월슨을 가까이에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2017년 40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16명이 2,3년 이상 국제여름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하는 참가자였습니다. 40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20명 월슨과 작업을 통해 여름프로그램을 알았거나 여름프로그램 이후로 월슨과 작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스테프들은 거의 대부분 여름프로그램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여름프로그램은 월슨과의 관계를 세우는 주요한 프로그램인 드러냅니다. 5주간의 생활은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프로그램 참여자나 스테프 뿐만 아니라 월슨과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근황을 묻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워터밀센터의 특징>

현재 고령의 나이임에도 로버트 월슨은 세계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개

인 거처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세계를 오가면서 거처를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년 7,8월 월슨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워터밀센터는 그의 **홈그라운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워터밀센터가 월슨의 홈그라운드로 여겨지는 두번째 이유는 그의 **주요한 지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지적장애아, 그의 절친한 친구인 건축가, 의상디자이너, 현재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드라마투르기와 무대 디자이너등 그와 함께 오랜 기간 작업한 동료들과 그들의 예술가 지망의 자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워터밀센터 상주 스테프들도 주로 여름프로그램 출신들이 많습니다. 즉, 일년에 한 번씩 전세계에서 모두가 모이는 여름휴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방문도 4가정이나 되고 있고 만 1세의 아이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도 한 마리씩 있는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갈라 이후 여름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가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세미나를 진행하는 강사들을 중심으로 저녁에는 30분-1시간 가량의 **강의, 토론**이 일반인, 외부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예술 교육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 공립학교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월슨의 특징〉

월슨은 아침미팅 때마다 침묵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에게 침묵은 작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그는 배우들에게 자세를 강조합니다. 균형과 대칭은 무대 위에서의 미의 추구에서 더 나아가 배우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리, 정돈, 청결은 이 복잡하고 많은 작업들을 진행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월슨의 주요한 법칙입니다. 모든 물건들을 항상 제 자리에 두는 월슨의 습관은 조직에 있어서 그 특징이 그대로 베어 있습니다. 월슨의 수집품 중에 의자가 눈에 띕니다. 나무, 돌 자연물을 토대로 만든 조각품들을 좋아 합니다.

〈워터밀센터의 음식〉

월슨의 공연에 자주 등장했던 인도네시아 댄서 출신의 요리사가 직접 다양한 요리를 많이 시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좋은 요리사이더라도 한 사람의 음식을 5주간 먹는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음식을 말이지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간동안 종종 자원하는 요리사를 받습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이 이탈리아의 정통 피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정말 맛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좀 하는 친구들 저마다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저녁식사 준비 시간이 꽤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빔밥을 알려 주고자 했으나, 한국 마트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어서 불가능 했습니다. 한국 요리법과 재료를 준비해서 가세요. 한국의 음식을 알리면 월슨에게도 동료에게도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님 인터넷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재료비는 워터밀이 냅니다. 저희 숙소 친구들에게는 함께 김과 신라면을 먹었는데 아주 좋아 하더라고요. 인원은 시기에 따라 60-100명 정도가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월슨은 매운 음식도 잘 먹고 아시아 음식과 쌀을 특히 좋아 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1회 참여보다는 3~5년간의 장기적인 참여를 권하고자 합니다. 로버트 윌슨과 워터밀센터로 인한 라인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가족적인 환경이 많이 눈에 띕니다.

국제적인 협력 공연을 주로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윌슨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제 사회에 많이 알려진 중국, 일본의 공연예술에 비해 윌슨이 접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한국 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책장은 전부 중국에 대한 책들 뿐이었습니다. 전통공연예술 방식과 의식들을 좋아하는 윌슨에게 한국의 문화와 공연예술을 알릴 수 있는 사진집들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의 오감도의 영어 버전을 구해 주었는데 신기해 하셨습니다.

여름 프로그램 내내 전문 사진가 3명이 기간 내내 사진 기록을 합니다. 노동시간이 절반 이상인긴 하지만 헤어나 의상 외모적인 부분에 시간을 내어 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매일의 사진을 윌슨이 유심히 체크합니다. 사진 속에 많이 등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윌슨이 안보는 듯해도 어디선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윌슨에게 과제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집요하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름프로그램의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윌슨도 물론 완벽주의입니다.

아무 프린트가 없는 검은 셔츠, 검은 바지를 넉넉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프린트 없는 검은 옷을 즐겨 입는 윌슨은 배우의 검은 의상 착용을 좋아합니다. 물론 공연연습이 없을 때는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옷이 좋습니다.

윌슨은 아시아 전통적인 요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를 행사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생각해서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자료





